

## 아동의 자아실현 – 안전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와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를 중심으로

이 영 준  
(한남대학교)

Lee, Youngzun. “The Children’ Self-Actualization through the Needs of Safety and Belonging: *Outside Over There* and *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 *Studies in English & Literature* 46.3 (2020): 233-251. This paper sets out to explain the need and self-actualization of children in the psychological views of Maslow’s theory of self-actualization. The discussion in this essay will be limited to children in the middle of the Pre-operation Period (aged 4 to 7 years) and the beginning of the Concrete Operational Period (aged 7 to 8 years). This paper focuses firstly on children’s safety need provided by family stability and secondly on the need of belonging through friendship, which are related to the second and the third stage of self-actualization. For this purpose, I will look at how a young girl fantastically fulfills her wishes for her family safety in Maurice Sendak’s *Outside Over There*. Then, I will explain how a school girl depicted in Jacky Davis’s *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 successfully makes a friendship by achieving a sense of belonging with her friends. These children achieve their self-actualization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ages and development stages. (Hannam University)

**Key Words:** *Outside Over There*, *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 the needs of safety and belonging, Maslow’s self-actualization, family and friendship.

### I. 아동의 자아실현

인간의 삶은 원초적인 욕구(Id)에서 발현하지만 이 근원적인 충동들에 대한 인

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내재된 생명 에너지(libido)는 삶을 구현시키는 원천이다. 이러한 생명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근원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게 하는 사고와 행동의 바탕이기도 하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 욕구일수록 더 강열하고 갈급하게 나타난다. 이 “본래적인 첫 번째 욕구가 좌절되면 통제하기 힘든 충동으로 발현되어 표출된다”(Steenbakkers et al 2).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이 만족이 되어야만 기본적 욕구들을 결정하고 촉진시키는 강력한 원초적 충동들이 멈춰지기 때문이다”(Maslow 1943, 375). 원초적 본능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어야만 사회문화적인 상위 계층의 욕구들이 발현될 수 있다.

매슬로(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하위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들이 나타나고, 이들은 욕구의 위계에 따라서 5단계로 구축된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배고픔, 갈증, 잠, 배설 등을 해소하고 신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이다. 2단계는 안전과 관련된 욕구로 가족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추구한다. 3단계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인데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4단계는 사회적 성공을 통하여 존경과 유능함을 인정받기 위한 욕구이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일상생활”(Maslow 1987, 202)에서 혹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자신이 가진 창조성을 실현하려는 욕구이다”(Maslow 1987, 201). 이러한 자아실현은 개인적으로 “내적인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여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본인과 세계(혹은 사회) 사이의 화해와 통합”(Maslow 1987, 205)을 성취하려는 끝없는 노력이다.

그동안 매슬로의 자아실현에 관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비판을 받아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아실현에 대한 이론은 아동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애초에 그는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정체성도 없고 자립심 등도 결핍된 “어린 사람들(youngsters)”(Maslow 1987, 26)에게는 자아실현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실현이 지닌 창조성은 성취보다는 인성 혹은 개성(personality)”에서 나온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대담함, 용기, 자유, 자발성, 명석함, 통합성, 자기인정”(Maslow 1968, 160) 등과 같은 내적특징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인 특징들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자아형성, 자존감의 발달, 조망수용능력과 상호적인 사회성의 발달 등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면에서 매슬로의 욕구의 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이론을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매슬로의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몇몇 논문들은 “매슬로의 위계이론을 골격으로 하여 아동들의 욕구에 대한 연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Steenbakkers et al. 2). 그동안 많은 논문들은 아동들의 욕구, 소망, 갈망 혹은 동기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들이 지닌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들에 대한 병리적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들이 보여주는 병리적 문제보다는 이들의 욕구 혹은 동기에 대한 연구로 바뀌고 있다”(Steenbakkers et al. 1). 아동과 성인들이 보여주는 욕구와 자아실현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들에게 자아실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매슬로의 자아실현 이론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복지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을 제시 해주기 때문에 올바른 성인으로 인격과 사회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아동들에게도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매슬로의 이론은 아동들의 “학습 그리고 성장과 발달을 자극시키는 개념과 이에 필요한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이”(Heylighen 39) 규명되었다.

아동들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의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향상성, 안정감, 보호, 보상, 탐험(혹은 놀이)”(Heylighen 39)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매슬로의 1단계 생리적 욕구충족은 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들에게 해당된다. 2단계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자아실현은 대체로 학령기이전의 아동들과 관련이 된다. 아동들에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면 3단계인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나오게 된다. 이 3단계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통한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충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들의 성취는 아동들의 자아실현과 직결된다. 성장과 발달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자아실현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성인들만큼 발전시키기 못한 아동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자존감의 형성과정과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장과 발달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적에 4단계인 사회적 성공의 욕구 충족과 5단계의 최종적인 자아실현은 성인에게 관련될 뿐 아동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인들처럼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공,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없는 아동들의 자아실현은 성인들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의 자아실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속한 나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발달단계가 지닌 특성에 따라서 욕구의 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과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자아실현의 문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영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로 젖 먹고, 잠자고, 배설하는 등의 생리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감각운동기(0-2세)에는 몸의 향상성, 정서적 안정감, 신체의 유지와 보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체로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초반의 전개념 단계인 0-3세에 속한 영아와 유아는 매슬로의 1단계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과 관련된다. 에릭 칼(Eric Carl)의 『배고픈 애벌레』(*The Very Hungry Caterpillar*)는 애벌레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성장하는 이야기로<sup>1</sup> 영아(0-2세)가 유아(2-3세)로 성장해가는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욕구충족은 영아들에게 자아실현이다.

영아는 감각운동기를 거쳐 전조작기 초반인 2살 경에 도달하면 유아로 성장한다.<sup>2</sup> 3세 정도에 도달한 아동들은 현실과 환상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마법적인 힘들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Berk 242). 3-5세에 도달한 아동에게는 3단계인 가족이 제공하는 사랑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아동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가

<sup>1</sup> 이영준. 「『배고픈 애벌레』와 『깊은 밤 부엌에서』에 나타난 전능적 판타지 읽기」. 『동화와 번역』. 37(2019)을 참고 할 것.

<sup>2</sup> 2-4세에 들어선 아동들은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 아동들은 친근한 주변의 사람들과 대상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현실을 구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사물의 순서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정에서 잘 자란다”(Meslow 1943, 377).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과 안정된 가정생활은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활론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들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마법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강하다.

가정과 안전에 대한 2단계의 욕구가 해소되면 3단계인 친구집단에 대한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전조작기 말기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기에 속한 6-7세 정도의 아동들은 친근한 집을 떠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들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친분을 얻어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점진적으로 사회화되기 시작한다. 마법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보다는 현실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우정을 통한 소속감의 성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급우들과 교류하면서 올바르게 자아와 자존감을 형성하고, 조망수용능력과 같은 상호적인 사회성을 키워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아실현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기반영적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소속감을 획득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들의 욕구와 자아실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조작기 중반과 구체적 조작기 초반에 도달한 4-8세 정도의 아동들로 한정시켜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매슬로의 5가지 욕구 중에서 2단계에 속한 가족관계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와 3단계에 속하는 친구집단에 대한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충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모리스 센닥(Maurice Sendak)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Outside Over There*)를 통하여 어린 아동이 가족관계적 안전에 대한 소망을 환상적으로 충족시키는 2단계의 욕구와 자아실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 제키 데이비스(Jacky Davis)의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에 묘사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친구사귀기를 살펴보면서 3단계인 우정과 소속감의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 II.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

매슬로의 안전에 대한 2단계의 욕구충족은 직관적 단계에 속한 4-6세 정도인 아동들의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가족에 의한 돌봄과 충족을 통하여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들의 자아실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충족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양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의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신체를 보호하고 만족스러운 양육을 받고 싶은 욕구는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아실현이다. 모리스 셴닥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괴물 도깨비인 고블린(Goblins)들에게 납치된 동생을 구해오는 어린 아이의 모험이 담긴 환상적 판타지다. 이 마법적 이야기는 어린 아동의 가족적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아이다(Ida)의 자아실현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가상적으로 충족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4-5세 정도에 도달한 아이다는 셀만(R. Selman)<sup>3</sup>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수용 단계(egocentric viewpoint)에 도달해 있는 아동이다. 자기중심적 조망수용을 하는 탓에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을 내보인다. 그녀의 감정과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sup>3</sup> 셀만의 조망수용단계	연령	특징
level 0 자기중심적 조망수용	3~6	아동들은 자신과 다르게 조망 못한다.
level 1 사회정보적 조망수용	6~8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level 2 자기반영적 조망수용	8~10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나 두 관점을 동시에 고려 못한다,
level 3 제3자적 조망수용	10~12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타인도 동일하게 하는 사실을 안다.
level 4 사회관습적 조망수용	12~15	사회적 가치체계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아이다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 알고 있으나,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조작기 후반인 직관적 단계에 속한 그녀는 상호적 관계가 표상하는 “사회적 견해를 구분하지 못하며 (...) 사회적 행동의 이유에 대한 원인과 결과 관계도 구분하지 못한다”(Santrock 399). 아직 취학 전이라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다와 같은 어린 아동들은 집밖의 사회현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다 또래의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종 혼란을 겪곤 하는데”(Beck 329), 이들은 아이다의 경우처럼 객관적인 조망수용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관적 단계에 속한 그녀(4-6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있지만 물활론적(animistic) 사고로 인하여 환상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 시기에 속한 아동들의 표상능력은 종종 기발하고 매우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세상을 인식하는 “이들의 사고는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 경향”(Beard 24)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각적 판단에 의존한 직관적 사고”(Beard 26)로 인하여 그녀의 인식능력이 감각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탓이다. 더 나아가 괴물인 고블린에 의하여 어린 동생이 납치되는 사건과 같은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치면 이들은 아이다처럼 마법적(초현실적)인 힘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내보이는 특징이 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정감을 확보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아이다가 자신의 내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야기이다. 아이다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집에 머물러 있는 아동으로 환상이나 상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상시킨다. 직관적 단계(4-7세)에 도달한 아이다는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식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고의 범위가 주로 가족관계에 한정된 상태에서 집밖의 현실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가족관계는 세상 그 자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가족에 의한 돌봄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감이 지닌 실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아동이다. 그러므로 만일 부모가 직업, 집, 저축, 건강보험 등을 상실하

게 된다면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녀는 커다란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의 첫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멀리 떠난 뒤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어린 동생을 버려두고 우울증에 빠져 의욕을 잃은 채 바다만 응시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먼 바다로 떠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자 사랑과 애착의 주체가 상실되고 물질적인 충족과 가정의 안정감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이에 따른 불안, 공포와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 아이다는 마음을 달래고 어린 동생을 잠재우기 위하여 빨 나팔<sup>4</sup>을 분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아이다는 가족의 결속과 안전을 위해 용감하게 엄마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었던 위기상황이 곧바로 닥쳐온다. 아이다가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면서 잠시 그림을 보며 나팔을 불고 있는 사이에 고블린<sup>5</sup>들이 나타나 동생을 납치한 후 얼음인형을 놓고 사라진다. 잠시 후 동생을 꺼안자마자 얼음이 녹고 이에 동생이 납치된 사실을 알아 채 아이다는 “내 동생을 훔쳐 가다니! 못된 고블린이 내 동생을 신부로 삼으려 한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엄마의 우비를 입고 나팔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동생을 찾으러 밖으로 뛰어 나간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의무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지만 동생을 보살피는 일은 아이다에게 아직은 벽차 보인다. 동생이 납치되는 그림에 쓰여 있듯이 사실 어린 그녀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부딪친 아이다의 불안한 내면심리와 분노가 벽면에 걸린 2개의 그림을 통하여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는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 위에서 배가 항해하는 그림이다. 첫 번째인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납치된 동생을 찾으려는 절박한 욕구와 소망이 투영된 듯이 수많은 해바라기 꽃들이 피어나 동생을 찾으려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을 보

<sup>4</sup> 빨 나팔은 일종의 초기전이대상이다. 초기전이대상은 보호자가 부재할 때 보호자의 현존을 환상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위안을 제공해주는 친근한 대상들을 가리킨다.

<sup>5</sup> 잉글랜드의 신화에서 난쟁이의 모습을 한 심술궂은 정령이다. 숲이나 동굴에 산다고 하며, 어린이와 말을 좋아하며, 말의 갈기를 빗거나 나쁜 어린이를 잡아간다고 믿었다.



면 바다 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에 떠밀리는 난파선이 그려져 있는데”(Nikolajeva & Scott 101-102), 거센 풍랑과 좌초할 듯이 보이는 난파선은 동생을 잃은 아이다가 얼마나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아직 언어적 표현능력 혹은 정신적 표상능력이 부족한 아이다에게 이 두 그림들은 그녀의 속마음을 시각적으로 보다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동생을 찾겠다는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아이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일방적인 환상)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동생이 납치됐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그녀가 서두르는 바람에 고블린들이 동생을 데려간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게 되었다. 아직 어린 그녀는 동생의 납치라는 사태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먼 바다에서 “아이다야, 빗속을 거꾸로 가는구나. 이제 몸을 돌리렴. 나팔을 연주해 고블린들을 잡고 아기의 결혼도 막으렴!”하는 아빠의 노랫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온다. 이 노랫소리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동생이 납치된 방향을 알게 된다. 저 멀리 바다로 나간 아빠의 노랫소리가 마치 마법처럼 동생이 납치된 곳을 알려준 것이다.<sup>6</sup>

납치된 동생을 구해오는 일은 비록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애초부터 아이다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노란 비옷이 지닌 능력을 빌리고, 먼 바다에 있는 아빠의 도움과 나팔이 가진 마법의 힘으로 고블린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동생을 구해 낸다. 동생을 납치한 고블린들을 찾아낸 아이다가 나팔을 불자 이에 신이 난 고블린들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고블린들이 춤추다가 모두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박수를 치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납치된 아이다의 동생이었다. 아이다는 나팔을 불어 위기를 모면하고 아이로 변장한 고블린들 속에 숨겨진 동생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빨 나팔은 마법적인 힘을 가진 도구로 사용 된다. 아이다는 “이 빨나팔의 마법을 이용하여 고블린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고블린들로 하여금 미친 듯이 춤을 추게 하여”(Nodelman 122) 모두 바다 속에 빠트려 죽인다. 이처럼 아

<sup>6</sup> 아빠의 노래 소리는 아이다에게 초기전이대상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항상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친숙한 노래 소리 역시 초기전이대상으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면 마법이나 환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직관적 단계에 속한 아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주인공의 정서적 감정이나 내적 심리를 상징적으로 또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Nikolajeva & Scott 101), “신비롭고 마술적인 리얼리즘”(Nodelman 170)이 잘 나타나있다. 아이다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적으로 반응하지만 동생의 납치사건을 해결하는 일에는 물활론적인 마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다의 모험 판타지가 보여주듯이 그녀의 “정신적 표상행위는 환상적인 가상 놀이(make-believe)” (Berk 242)로 표출된다.

아이다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인식하는 가운데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환상적인 판타지를 통하여 충족하고 실현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에 부딪친 “아이다가 그녀에게 너무 크고 맞지 않은 비옷을 입었듯이 처음에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Nikolajeva & Scott 102).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빼앗아간 고블린들에 대하여 아이다는 분노한다. 이러한 분노는 장녀로서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에 따른 부담과 책임감을 떠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고블린들은 아이다의 소중한 애착대상인 동생을 빼앗아 감으로써 가족을 지키려는 그녀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기꺼이 떠맡는다.

아이다가 동생을 돌보는 장면을 보면 “아이다의 신체크기의 반 정도 되는 동생과 그녀의 발이 신체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그려져 있어 아이다가 감수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Nikolajeva & Scott 101). 고블린에 의해 동생이 납치되기 전부터 아이다는 어린동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돌보아 왔었다. 그러나 동생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자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었다. 그러나 “얼음인형과 바뀐 아이를 가슴에 앓는 장면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된”(Nodelman 234) 후에 아이다는 심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상적 위기는 비록 가상적인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정신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가족이 와해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이다는 심리적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용기

를 내서 동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그녀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상 자신과 동생이 동일시되는 가운데 동생을 구하는 일은 자신의 신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대리적으로 확보하는 행위이다. 동생과 그녀는 하나인 동시에 가족으로써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 속에는 그녀가 가족과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내적갈망과 욕구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동생처럼 납치되는 위기상황에 빠졌을 경우 당연히 가족이 혹은 부모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표현되어 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다는 “아빠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빠를 위해서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다오.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쓰인 아빠의 편지를 보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가 편지에서 부탁한대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아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족이 위태롭게 된 상황을 받아드리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실현시킨 것이다. 아이다는 가족과 동생을 위협으로부터 구해내고 가족과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환상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그녀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맞는 자아실현하게 된다.

### III.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

####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

아이다와 같은 전조작기 아동들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자기중심적인 환상적 판타지를 통하여 실현시킨다. 그러나 전조작기 말기(6-7세)로 다가가게 되면 “요정과 고블린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파괴하는 황당한 사건들”(Berk 242)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 조작기(7-11세)에 들어서면서 아동들은 환상적 경향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겪게 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아동들은 “같은 나이 또래, 반 친구,

가치 있는 동료로서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행동”(Berk 609)인 상호성(reciprocity)을 배우게 된다. 이들에게 양방향 교류를 가능케 하는 상호성이 생겼다는 사실은 조망수용능력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조망수용능력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탈중심성에 기반을 두고 “다원적으로 전망”(Selman & Byrne 803)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다. 친구들과의 우정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조망수용능력은 아동들로 하여금 상호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증진케 해준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6-7세)들은 자기중심인 조망수용을 가진 이전 단계의 아동들과 달리 보다 발전된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게 된다. 단체생활을 통하여 “타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고 타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Berk 466). 그러나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진 이들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Berk 466)하지만 아직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까지는 조망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타인들을 다른 생각과 감정을 지닌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대상으로만 본다”(Selman & Byrne 804). 탈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상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내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들 아동들이 친구들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7-8세경에 도달한 아동들은 보다 발전된 자기반영적 혹은 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들 성장한 아동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탈중심화되기 때문이다. 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진 아동들은 “타인의 관점을 상호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과 행동을 조망할 수 있고 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호성을 체득하게 된다”(Berk 466).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조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기반영적(상호적) 조망능력이 요구된다.

데이비스의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는 전조작기 말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기에 도달한 아동(7-8세)이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그림책에는 빨간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날개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무당벌레 아가씨로 불리는 7-8세 정도인 주인공 룰루가 등장한다. 그녀는

친구와 사귀고 함께 놀고 싶어 하는 마음과 달리 친구와 노는 일에 실패한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고심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친구인 샘(Sam)과 놀이하기에 성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탈중심화 됨으로써 상호적으로 샘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룰루는 사회정보적 조망수용에서 벗어나 자기 반영적인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여 친구인 샘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탈중심화된 룰루는 친구가 되기 위하여 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한 끝에 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그녀는 놀이터에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이를 함으로써 또래관계가 제공하는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다. 룰루처럼 친구인 샘과 우정을 쌓고 친분을 얻어 소속감을 성취하는 일은 전조작기 말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반의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의 충족인 동시에 자아실현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3단계인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를 보면 룰루는 어느 날 집을 나와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가간다. 무당벌레의 옷차림을 한 룰루는 길을 걷다가도 길바닥의 갈라진 틈을 깊은 계곡으로 상상하면서 뛰어넘어 가고, 길가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숫자를 세면서 걷는다. 길에서 만난 이웃집 아주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기도 하는 착한 아동이다. 이러한 룰루에게서 환상적인 성향과 자기중심적인 특징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상호적 조망능력도 엿보인다. 그러던 중에 놀이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친구인 샘을 만나게 된다.

룰루와 같은 발달단계에 속한 아동들은 타인의 마음을 조망할 수 있는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룰루는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친구인 샘의 마음을 알지만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결등을 겪고 어려움에 봉착한다. 샘은 모래 위에서 땅파기 놀이를 하고 싶었지만 룰루는 자신의 멋진 장화에 흙을 묻히기가 싫어서 땅파기 놀이를 거절한다. 잠시 후 룰루는 높은 성위에 올라가 공주놀이를 하지고 다시 제안하지만 여자아이를 위한 공주놀이가 싫은 샘은 이를 또 거절한다. 그 후 룰루는 시소를 타기와 정글짐 놀이를 연달아 제안하지만 샘은 이마저도 거부한다.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탈중심화 되

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결국 샘과 룰루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서로 쏘아 보는 가운데 룰루는 “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고 하잖아”하고 화를 냈고, 샘도 역시 “넌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했잖아!”하고 소리를 치며 분노한다. 서로 자기주장만을 할뿐 갈등을 상호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사회정보적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룰루와 샘은 상대방이 자신과 함께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가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한 정보만 확인한 채로 자신들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진척시킬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호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합을 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함께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 들이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친구와 사귀고 의견이 다른 친구와 화해하고 함께 놀이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룰루는 마음에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함께 놀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실망을 느낀 그녀는 자신과 놀이를 거부한 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상호적으로 조망해보는 탈중심화 과정을 겪게 된다. 탈중심화가 된다는 의미는 아동들에게 자기반영적(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함을 뜻한다.<sup>7</sup>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상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능력”(Berk 447)과 “상대가 처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이해할 수 있는”(Berk 409) 상호적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유아기적 행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성장과정을 겪게 된다”(Greenberg & Mitchell 195).

일반적으로 룰루나 샘과 같은 어린 아동들 사이에서는 불화가 생길지라도 “서로 적대시하는 갈등관계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Beck 468). 사실상 룰루와 샘은 친구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고 싶은 욕구와 동기가 강한 아동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조작기로 성장한 아동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친구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로 바뀌어 진다”(Beck 468). 이들에

<sup>7</sup> 피아제(J Piaget)는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을 인지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았다. 아동의 사고구조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탈중심화로 변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게는 단지 어떻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노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혼자 놀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룰루는 “이러다 정말 혼자 놀게 되면 어찌지?”하고 고민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풀 수 있는 상호적 공감능력은 아동들이 동료관계를 성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 샘을 설득해서 함께 놀아야 하는데 하고 한동안 고심을 한 후 룰루는 “샘, 무당벌레 아가씨 놀이를 해보지 않을래?”하고 묻는다. 그러자 “무당벌레 아가씨? 어떻게?”하고 샘이 되묻는다. “나를 봐! 무당벌레 아가씨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힘도 무지무지 세!”라고 하면서 철봉에 매달린 채 날쌔게 앞으로 돌기 시작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샘이 “초능력? 우와! 대단한데”하며 초능력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놀이에 흥미를 느끼며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룰루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Beck 469)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룰루는 날개를 가진 무당벌레 아가씨가 되고 검은 색과 노란 색 줄무늬 옷을 입은 샘은 하늘을 나는 꿀벌이 되는 변신놀이를 하게 된다. 이에 흥미를 느낀 샘은 꿀벌에게는 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막대기까지 주워 들고 놀이에 열중한다. 새로운 상상놀이에 들떠서 재미있게 놀게 된 그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 같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하고 큰 소리로 함께 왜치며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를 구해주기 위해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던 중 강아지를 괴롭히는 다람쥐를 보고 쫓아내고는 큰 승리를 거둔 영웅들처럼 즐거워한다.

서로 친구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룰루와 샘이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 동안 잠자리 옷을 입은 말리와 나비 옷을 입은 키키가 다가온다. 이친구들도 역시 멋진 변신놀이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은 룰루와 샘이 그랬듯이 둘 다 나비가 되고 싶다고 화를 내고 토라진 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겠다고 우기며 싸움을 한다. 아직 이들에게 자기조망적(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때 룰루가 나서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함께 놀 수 있어”라고 이들에게 화해하기를 권한다. “우린 힘을 합쳐 나쁜 녀석들과 싸워야 하거든”하고 샘도 거든다. 잠시 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룰루는 “잠자리는 어때? 잠자리는 불을 뿜을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새로

운 놀이를 제안한다. “잠자리가 불을 뿜는다고? 우와. 그럼 난 잠자리가 될래”하고 말리가 반갑게 응답한다.

이처럼 상호적(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진 “아동들은 종종 다른 아동들의 욕구를 감안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Beck 469).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Russell 207)을 하면서 성장해 간다. 잠시 시간은 걸렸지만 룰루는 친구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만큼 성장한 아동이다. 룰루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여 샘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결국은 그와 친구가 된다. 이들은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신중하게 재고해보게 됨으로써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능력을 뛰어넘어 상호적인 친구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 체득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친구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비록 서로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을 지라도 결국은 상호간에 공유되고 합의된 이해에 도달하게 해주는”(Tudge 1365) 조절과정이다. 룰루와 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을 통하여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도 파악할 수 있어 한다. 이러한 상호적(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은 “자신과 타인을 독립된 주체로써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타인을 자신처럼 대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행동을 반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능력”(Selman & Byrane 803)을 의미한다.

결국 룰루와 샘 그리고 말리와 키키 이들 모두는 친구가 됨으로써 “정서적 공감대”(Kalat & Shiota 257)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공유되는 지식과 공통적인 경험”(Leadbeater 2)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행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우정”(Mitchell 111)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상호적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전조작기 말기 혹은 구체적 조작기 초기에 속한 아동으로써 친구관계를 통한 소속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 IV. 결 론

0-3세의 아이들은 1차적인 생리적 욕구의 충족에 전적으로 몰입한다. 4세 정도에 도달한 아동들은 전조작기(2-7세)의 중반인 직관적 단계(4-7세)를 지나 구체적 조작기(7-11세)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초반(11-12)로 성장해가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간다. 이 논문에서는 자아실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아동의 나이를 대략 5세에서 11세로 한정시켜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나이와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해가는 아동들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의 독특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구체적 조작기는 전개념 단계(2-4세)와 직관적 단계(4-7세)로 나누어져 있다. 전개념 단계에 속한 아동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조망수용능력을 강하게 내보인다. 직관적 단계에 들어선 아동들은 현실을 인지하지만 환상적이고 물활론적인 경향에 더 친숙하다. 그러는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조망수용능력을 통하여 제한되고 한정된 감각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준다. 이들 아동들에게는 매슬로의 2단계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자아실현이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납치된 동생을 구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정감 확보한 주인공인 아이다(4-6세)의 환상적인 자기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조작기 말(6-7세)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반에(7-8세)에 들어선 아동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럼으로써 환상보다는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사실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단체생활을 통하여 “동료들과 보다 원활하게 반응하여 협조적인 상호관계”(Berk 602)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키우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보다 발전된 상호조망적(자기 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 아동들의 최우선 욕구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한 소속감을 충족함으로써 매슬로의 3단계에 속한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는 전조작기 말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반의 아동인 룰루(7-8세)가 어떻게 친구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우정을 통하여 소속감을 성취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3단계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성취하려는 성숙한 아동들은 “다른 아이

들의 대화를 들으며 협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놀이에 몰두함으로써 타협하는 기술을 훈련해야”(Densmore & Bauman 142-143)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상황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탈중심화”(Selman & Byrane 803) 과정을 겪어가게 되고 결국은 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구체적 조작기 중반에 들어선 성장한 아동들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학교를 넘어 주변의 공동체로 까지 확대되어 진다. 이들은 학교 밖의 친숙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확장된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성숙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자아형성, 조망수용, 자존감, 상호관계적인 능력 등에 대한 욕구충족은 이들 아동들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처럼 확장된 아동들의 욕구와 자아실현에 대한 논의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보다 신중하게 학술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제들이다.

## Work Cited

- Beard, Ruth Mary. *An Outline Piaget's Developmental Psychology for Students and Teachers*. New York: Basic Books. 1969. Print.
- Berk, Laura. *Child Development*. Boston: Pearson Education. 2006. Print.
- Davis, Jacky. *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 New York: Dial Books. 2009. Print.
- Densmore, Ann E. & Margaret L. Bauman. *Your Successful Preschooler: Ten Skills Children Need to Become Confident and Socially Engaged*. New Jersey: Jossey-Bass, 2011. Print.
- Greenberg, J & S. Mitchell. *A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Mass): Harvard UP, 2003. Print.
- Heylighen, Francis. “A Cognitive-System Reconstruction of Maslow's Theory of Self-actualization.” *Behavioral Science* 37.1 (1992): 39-58. Print.
- Kalat, James W & Michelle N. Shiota. *Emo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2. Print.
- Leadbeater, Bonnie J. “Between Subject: Shared Meaning of Intersubjectivity.” Web. 12 Sep. 2017.
- Maslow, A. 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y Review* 50 (4): 370-96. 1943. \_\_\_\_\_ .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Hohn Wiley & Son. 1968. Print.

- \_\_\_\_\_.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Pearson. 1987. Print.
- Mitchell, Stephen A & Black, Margaret J. *Freud and Beyond: A History of Modern Psychoanalytic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1995. Print.
- Nikolajeva, Maria and Carole Scott. *How Picturebooks Work*. London: Routledge, 2006. Print.
- Nodelman, P.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Georgia: Athens UP, 1988. Print.
- Santrock, John W.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2006. Print.
- Selman, Robert & Diane F. Byrne, "Structural-Developmental Analysis of Levels of Role Taking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5.3 (1974): 803-06. Print.
- Sendak, Maurice. *Outside Over There*. New York: HarperCollins. 1989. Print.
- Steenbakkers, Anne, Steffie Van Der Steen & Hans Grietens. "The Needs of Foster Children and How to Satisfy Them: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 Child Fam Psychol Rev* 21 (2018): 1 - 12. Print.
- Russell, David L. *Literature for Children*. Boston: Pearson Education, 2005. Print.
- Tudge, J. R. H. "Process and Consequences of Peer Collaboration: A Vygotskian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 (1992): 1364-379. Print.
- Young-Zun, Lee. "A Reading of the Omnipotent Fantasy in The Very Hungry Caterpillar and In the Night Kitchen." *Story & Image Telling* 37 (2019). 121-44. Print.
- [이영준. 「『배고픈 애벌레』와 『깊은 밤 부엌에서』에 나타난 전능적 판타지 읽기」. 『동화와 번역』 37 (2019). 121-44.]

이영준 (한남대학교/교수)

주소: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nsoyilee@naver.com

논문접수일: 2020. 03. 31 / 심사완료일: 2020. 08. 12 / 게재확정일: 2020. 08. 12